

제65차 총회 제6회 임원회

제주지방회 '선교와 부흥 방안' 환담

총회(총회장 조남영 목사) 제65차 총회 제6회 임원회가 지난 10월 6일(목) 오전 11시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순복음만남의교회(담임 안재홍 목사)에서 열려 각종 행사와 청원건 등을 면담히 검토하고 각종 회부를 은혜 가운데 처리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교단 총무 최형택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부총회장 김갑신 목사의 대표기도, 총회장 조남영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조 목사는 행 2:43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모두가 꿈꾸는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당부하고 임원진들과 처음으로 함께 한 사모들을 축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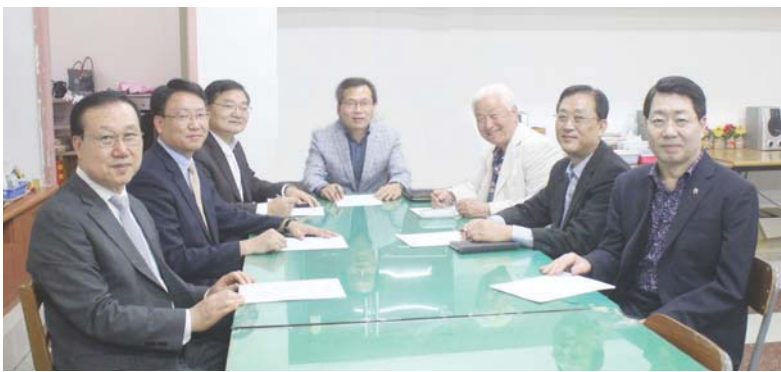
총회장 조남영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곧 바로 의장 조남영 목사 주재로 열린 회의는 서기 홍현철 목사의 회원점령, 총회장 조남영 목사의 개회선언 후 보고사항으로 이어졌다.

보고사항에서 교단 총무 최형택 목사는 교단업무 보고사항으로 2017년도 목사교사대상자 오리엔테이션 등의 내용들을 보고하였다.

이어 재무 조원제 목사의 수입보고, 회계 안재홍 목사의 지출보고 순으로 진행되었다.

결의 및 안건토의 사항으로 교회기금 청원, 교역자복지 청원, 교역자전출임 청원, 전도사임명 청원, 교회주소변경 보고, 교회명칭변경 보고, 선교사기금 청원 등이 보고 결의되었다.

기타사항으로 10월 17일부터 3일간 열리는 2016 전국사모연합회 단합대회, 2017-2018년도 총회달력 제작, 오는 10월 25일(화) 열리는 제65차



총회 제3회 실행위원회 등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임원들은 제주지방회장 김건수 목사와 제주지역

선교와 지방회 부흥방안에 대해 환담하고 제주의 주요 명소를 함께 둘러보았다.



교단 임원들은 제주지방회 임원진과 제주지역 유명관광지를 함께 돌아보며 제주지역 선교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직전총회장 진등용 목사, 남궁영애 사모 고회 감사예배

총서지방회 주관으로 거행

교단 직전총회장 진등용 목사, 남궁영애 사모 고회 감사예배가 지난 13일(목) 오전 11시 아산 호서웨딩프라자 마들렌부페에서 드려져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로 목회사역을 헌신적으로 감당해온 사역자 부부의 삶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단 총서지방회(회장 차홍식 목사) 주관으로 거행된 이날 예배는 지방회장 차홍식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부총회장 신재영 목사의 대표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교단 총회장 조남영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조 목사는 갈 6:7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의 흔적'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평생 예수님의 종으로 삼자기의 흔적, 예수님의 흔적을 간직한 진등용 목사님의 생애에 지금까지 함께 하신 것처럼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믿는다고 전하고 축복했다. 교단 증경총회장 이창재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곧바로 2부 축하순서로 이어졌다.

지방회 총무 김영권 목사의 인도로 열린 축하순



서는 꽃다발증정을 시작으로 가족일동의 축하, 교단 증경총회장 박영찬 목사의 축사가 있었으며, 박 목사는 축사를 통해 "한 평생 목회사역을 감당해온 진등용 목사님의 노고와 헌신에 하나님의 복이 가득 임하여 계심을 감사드립니다"고 전하고 남은 생애도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크게 쓰임받으시길 축복했다. 이어 직전 교단 서기 이인규 목사는 가슴 뭉클한 축시를 통해 진등용 목사의 고회를 축하했다.

자녀들의 큰절과 케익컷팅, 진등용 목사의 장남 진실노 집사의 인사 및 광고, 교단 직전 총무 김병목 목사의 만찬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치고 오찬을 함께 하며 진등용 목사, 남궁영애 사모의 고회를 축하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

직전총회장 진등용 목사는 1947년생으로 캐나다 크리스천칼리지 명예신학박사,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을 졸업, 한세대신학대학 졸업,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장 3년 역임, 교단 총회신학교 교수 역임, 민족복음화운동본부 부총재, 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 공동회장 역임,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 실무회장 역임, 아산시기독교연합회 증경회장, 아산시민족복음화운동본부 대표회장 등 다양한 경력이 말해 주듯 후학을 가르치고 교계연합사역에도 폭넓은 활동을 감당해 오고 있다.

진 목사 부부는 슬하에 1남1녀를 두었다.



'기독교 신앙을 설명하는 다섯 가지 용어'



조용목 목사

"비록...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합 3:17,18)

자신이 믿고 아는 비를 다른 사람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신앙지식이 잘 정리되어 있으면 자신의 신앙생활도 안정되고 견고하게 됩니다. 운동경기를 하려면 경기규칙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하듯이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기독교 신앙의 기본을 이해하고 핵심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섯 가지 용어로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그리함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죄 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이 은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입니다.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의롭게 됩니다. 추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흠과 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들어갑니다.

둘째는, "그러므로"라는 말입니다.

성도가 되기 위해 교회에 출석하고 주의 일에 헌신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우리 몸을 거룩한 산체사로 드리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이 세상 풍조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행하면 빛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그러하면"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명령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약속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명령과 약속을 주신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하면"이라는 접속어의 앞에 기록된 말씀은 우리의 일이지만 그 뒤의 말씀은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넷째는, "그러나"라는 말입니다.

인생길에 여러 가지 곤란과 위험이 닥쳐오지만 이

러한 때에도 성도들이 담대하게 처신할 수 있는 이유는 "그러나"라는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면 그는 곤경에 직면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그러나"라고 말하는 신앙을 가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는 어떤 지경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러나"라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섯째는, "그리 아니하여도"라는 말입니다.

히브리 세 청년, 사드락, 메사, 아벳-네고 성도들에게 "그리 아니하여도"라는 신앙을 본보기로 보여 주었습니다.(단 3:16~18)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합 3:17,18) 하박국 선지자 역시 우리에게 "그리 아니하여도"라는 신앙의 위대함을 보여 주었습니다. 우리는 죄짓고 불의하고 추하고 못난 인생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시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의인답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고 이 세상 풍조를 좇지 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명령과 약속을 주신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하면"이라고 했으니 그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크고 작은 문제가 밀려오고 사방으로 에워싸임을 당했을 때 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무궁한 지혜와 능력으로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상황을 완전히 바꾸어 놓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 내다보고 손잡고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최종적 승리와 영광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리 아니할지라도"라고 하면서 언제든지 하박국 선지자처럼 노래하며 찬송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와진리교회)

영창피아노 한 대, 소나타 LPG 차량 기증

교단 서기를 역임한 안산시흥지방회 증경회장 아세아 순복음교회 담임 이인규 목사는 교회에서 사용하던 영창피아노 한 대와 사모가 지금까지 잘 타 왔던 2008년식 소나타 LPG 차량을 필요로 하는 농어촌 교회에 무료로 드린다고 본지로 전해왔다.

사건에서와 같이 당장 손 볼 것 없이 바로 운행할 수 있는 차량과 피아노 이동 후 조율만 거치면 되는 영창피아노 브라운색 유광형으로, 필요로 하는 분은 목양신문사 또는



총회로 연락 주시면 교회형편을 고려하여 선착순으로 전달해 드리고자 한다. 연락처 02)2677-9935, 02)2675-5181

16포병대대 위문 장병들 격려 예수님의 사랑 전해

교단 군선교위원회

교단 군선교위원회(위원장 박순용 목사)는 수확의 계절을 맞아 한국전쟁 당시 승리를 위한 귀중한 전기를 마련한 춘천 전투를 기념하여 훈련을 하고 있는 16포병대대를 위로 방문하고 장병들을 격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다.

이날 위로 방문에는 박순용 목사를 비롯 박성윤 목사,

임병재 목사가 함께 했으며 위원장 박순용 목사는 장병들에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선배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본받아 국토방위에 헌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이 같은 숭고한 일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장차 군전역 후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위로한 뒤 우리들 구원하시기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다.

이날 군선교위원회에서는 장병들에게 음료수와 빵 등을 전달했다.



한국교회 일치와 연합에 앞장 다짐

한교연 150여 지도자들, 2016 신임교단장 총무 취임감사예배

사단법인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조일래 목사(은)는 지난 10월 6일(목) 오후 한국기독교 연합회관 17층 연회실에서 '2016년 신임 교단장(단체장)·총무(사무총장) 취임 감사예배 및 축하예식'을 거행하고 한국교회 일치와 연합에 앞장서기로 다짐했다.

신임 교단장 단체장 총무 사무총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1부 취임감사예배와 2부 축하예식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1부 예배는 법인이사 황인찬 목사(개혁증경총회장)의 사회로 김일출 장로(법인이사의)의 기도, 이명섭 목사(부서기)의 성경봉독, 테너 최화진 교수(영안교회)의 특별찬양, 직전 대표회장 양병희 목사(영안교회)의 설교, 특별기도 순으로 이어졌다.

특별기도는 박영길 목사(공동회장)가 '신임교단장과 총무를 위하여', 김효종 목사(공동회장)가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하여'



예, 박요한 목사(법인이사)가 '국가와 민족의 번영과 남북통일을 위하여', 김국경 목사(공동회장)가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를 위하여' 각각 기도했다.

'지도자가 들어야 할 소리'(사 55:3)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양병희 목사는 "양심과 믿음은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은 것으로 지도자는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무릇 지도자는 훗날 영원히 남을 역사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역사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도자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서 "모든 지도자들이 이 같은 소리에 귀를 기울여 영적 리더로서 한국교회와 사회에 바른 방향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종교인 과세, 구체적 준비 없으면 혼란가중

‘한국교회의 과제와 대처’ 주제로 제4차 콘퍼런스 개최

2018년 종교인 과세 시행을 앞두고 그 대처 방안의 모색과 교회 재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분당중앙교회(담임 최종현 목사)는 지난 9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분당중앙교회의 재정 운영 실제 평가와 종교인 과세 시행 이후 한국교회의 과제와 대처'를 주제로 제4차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박종구 목사(열간목회 발행인)의 사회로 최종현 목사가 총주제발표를 했고, 문병호 교수(종신대)와 서한제 박사(한국교회학회회장), 김두수 회계사가 소주제 발표자로 나섰다.

먼저 '분당중앙교회 재정운영 관리의 실제, 그리고 종교인 과세 시행을 앞둔 목회적 준비 제언'을 제목으로 발표한 최종현 목사는 "재정은 교회뿐 아니라 사회법적으로도 도덕이나 윤리적 지지를 넘어서는 실행법적 요소를 포함하므로 교회에 타격을 주기에 유용한 방법"이라며 "교회는 재정이 교회 파괴적 요소로 비화될 때 단호하게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흠결 없는 온전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최 목사는 분당중앙교회 사례를 들며 △적립성·절차의 정당성·공자'라는 재정운영의 3대 원칙을 통한 흠결 없는 사역과 책임 및 권한의 분산 △예산의 확보 집행, 결산 과정을 통한 온전한 마감 △회의록과 결재 기안 및 영수증 등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 위해 최 목사는 분당중앙교회 사례를 들며 △적립성·절차의 정당성·공자'라는 재정운영의 3대 원칙을 통한 흠결 없는 사역과 책임 및 권한의 분산 △예산의 확보 집행, 결산 과정을 통한 온전한 마감 △회의록과 결재 기안 및 영수증 등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 위해 최 목사는 분당중앙교회 사례를 들며 △적립성·절차의 정당성·공자'라는 재정운영의 3대 원칙을 통한 흠결 없는 사역과 책임 및 권한의 분산 △예산의 확보 집행, 결산 과정을 통한 온전한 마감 △회의록과 결재 기안 및 영수증 등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제15주년 국회기념식 및 감사기도성회 개최

굿뉴스사관학교, 다음 세대 위한 희망, 오직 믿음

남북평화와통일과 격차해소를 위해 국회의장 산하에 사단법인을 추진하고 있는 교육부 법인-굿뉴스사관학교(총설자 교장: 노경남 선교사)가 창설 15주년을 맞아 국회 기념식과 감사기도회를 지난 10월 8일(토) 국회헌정기념관에서 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성대하게 거행했다.

장상 목사(전 국무총리)의 축하 메시지, 김영진 장로(전 농림부 장관)의 환영사와 임죽송 회장(대만총통경제지휘위원회)의 축사, 노경남 교장(선교사)의 환영 및 대표인사 순으로 진행됐다.

김민정 교감의 사회로 이덕로 영광교회 장로의 기도와 노경남 교장이 인도하는 한 반도 평화와 희망 만들기, 대한민국을 위한 동성 기도 등으로 은혜롭게 진행됐고 안병호 원로목사(학원복음화협의회)의 공동대표의 축도로 1부 기념식 및 감사예배가 마무리됐다.



노경남 교장은 "다음 세대를 위한 희망의 대한민국을 오직 굳건한 믿음과 신앙으로 일구어 가고자 굿뉴스사관학교를 설립하고 오늘 15주년을 맞아 매우 감사하며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과 감사를 드린다"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장상 목사는 "우리교육의 현주소가 울곧게 자리매김 되지 못하고 날로 우려와 걱정이 높아지는 이때 그레도 우리 굿뉴스사관학교가 차세대를 향한 건강하고 바른 교육을 통해

인재양성과 바른 신앙관을 심어주고 있어 매우 감사하고 마음 든든하다"고 격려했다.

유네스코 아·태 교육의원 연평의장을 역임한 김영진 장로는 "모든 이를 위한 유네스코 교육이념과는 달리 우리 교육은 극심한 경쟁과 사교육의 민연으로 심히 우려스러운 이때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고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심어준 우리 굿뉴스사관학교에 큰 박수와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알쏭달쏭 김영란법 특별 세미나’ 개최

CTS, ‘교회도 알아야 할’ 부정청탁법 궁금증 해소

다음세대를 세우는 미디어선교 CTS기독교TV(회장 김경철)는 지난 10월 13일(목) 서울 동작구 노량진 CTS멀티미디어센터 13층 컨벤션홀에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이해와 대응을 모색하는 '알쏭달쏭 김영란법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김영란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자 마련된 이번 특별 세미나에는 교계언론인, 목회자, 교회관계자, 일반성도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 주 강사로 나선 법무법인 로고스 최진영 변호사는 △청탁금지법의 취지 및 적용 범위 △청탁금지법 규정의 내용 △금품수수금지 규정의 내용 △청탁금지법 관련 대응방안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최 변호사는 "최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김영란법 시행에 대해 66.1%가 선생님들에게 선물을 주지 않는 것에 찬성하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앞으로 이 법이 계속 유지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이 다수로 나타났다"면서, 김영란법에 대한 기대감과 긍정적인 변화를 바라는 여론을 설명했다. 또한 김영란법에 반대하거나 개정을 촉구하는 여론 역시 "김영란법은 과거 미



국 금주법처럼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경기침체, 중소기업 피해, 위헌 요소, 기업부담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찬반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현 한국사회에 김영란법이 완전히 뿌리내리는 데는 상당기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했다.

현장에 참여한 한 목회자는 "기독교 매체에 소속된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김영란법에 제한을 받는 언론인이 되는 것인가?"라고 질의했고, 최 변호사는 "교계 언론매체에 소속된 사내(외)이사로 속한 목사님들의 경우, 현행법상 목회자는 공직자 등에 해당되지 않지만, 교계언론사의 이사로서 언론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부정청탁법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회에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도, 동일한 제호로 연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행이 된다면(정기간행물로 등록 혹은 신고한 경우에 한함) 그 업무에 속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언론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예장호헌 정기총회, 총회장에 신용철 목사

‘예수를 바라보자’… 부총회장 도용호 목사 등 임원 개선

예장총회(호헌)는 지난 9월 26일 제101회 정기총회를 광주 유스호텔에서 151명의 총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갖고 총회장에 신용철 목사, 부총회장에 도용호 목사 김종현 장로 등 신 임원진을 선출했다.

이날 열린 총회는 경배와 찬양(서해노회 찬양단)에 이어 제1부 개회예배는 부총회장 도용호 목사의 사회로 부총회장 여정택 목사의 호헌선언문 낭독, 전부총회장 신은학 목사의 기도, 총회장 양연길 목사의 히 12:2 말씀씀을 본문으로 '예수를 바라보자'는 제목의 설교, 부총회장 도용호 목사 광고 후 증경총회장 안병호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제2부 선전식은 증경총회장 류한상 목사의 집례로 서서울노회장 박정복 목사의 기도, 집례자 류한상 목사 말씀과 분별, 분잔 후 증경총회장 서한철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이어 제3부 총회장 양연길 목사의 사회로 개회, 각



부 보고 제4부 임원선거후 신임 총회장 신용철 목사의 사회로 제5부 회무처리, 제6부 파회절차로 파회선언으로 마쳤다. 구 안건으로 총회 100년사 발간의 건은 계속 검토 추진하기로 했다.

신임 총회장 신용철 목사는 한국기독교 역사와 정통을 함께하는 교단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호헌)의 작은 자로 총회장에 선출됨에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회일 모

든 교회 위에 주님의 능력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다짐했다.

이날 새로 선출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 △총회장 신용철 목사 △부총회장(총무 겸) 도용호 목사, 여정택 목사 김종현 장로 △서기 유동열 목사, 부서기 김성수 목사 △회의록서기 신상희 목사, 부회의록서기 김종신 목사 △회계 구한나 목사, 부회계 신정혜 목사 △감사 정진만 목사, 윤국희 목사.

사랑의장기기증본부, 생명존중교육 실시

뇌사 장기기증인 김기석 군, 아버지 김태현 씨 아들의 모교에서

(제)사랑의장기기증본부(이사장 박진택 목사)는 지난 9월 28일,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에 위치한 재현고등학교(이하 재현고)에서 생명존중교육을 진행했다. 특별히 이번 생명존중교육에는 지난 2011년, 뇌사 장기기증으로 6명에게 새 생명을 선물하고

떠난故 김기석 군의 아버지 김태현 씨가 강사로 나섰다. 재현고가故 김기석 군의 모교이기 때문이다.

채플 시간을 통해 진행된 이번 교육에서 김동연 목사의 설교에 이어 특별한 주인공이 무대에 올랐다. 바로 뇌사 장기기증인故 김



기석 군의 아버지 김태현 씨였다. 그는 지난 2011년 아들을 떠나보내고 처음으로 아들의 모교인 재현고에 발걸음을 옮겼다.

강연을 위해 강단에 오른 김씨는 아들 기석 군과 같은 포래인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들을 보자마자 아들을 만난 듯 눈시울을 붉혔으며, 김 씨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들 기석 군이 남기고 간 생명과 장기기증의 소중함을 전했다.

지난 2011년 12월,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기석 군은 기말고사를 앞두고 갑작스러운 두통을 호소하다 뇌출혈로 쓰러져 뇌사 판정을 받았다. 그 이후 김씨는 평소 나누기를 좋아했던 아들 기석 군의 성품을 생각해 장기기증을 결심했고, 기석 군은 세상을 떠나며 6명의 생명을 살렸다.

허리케인 매슈 피해 아이티 긴급 지원

기아대책, 2010 대지진 후 최악의 상황… 관심 절실

국제구호단체 기아대책(회장 유원식)은 허리케인 매슈로 75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한 아이티에 1만 불 규모의 조종 구호자금을 전달한다고 10일 밝혔다.

허리케인 매슈는 지난 4일 230km/h의 강풍을 동반하며 아이티 남서부 지역에 상륙해 271명(7일 현재) 사망 기준, UN추산이 넘는 사망자를 발생시켰다. 10일 현재 피해 상황 파악이 완료되지 않아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매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은 최소 75만 명이며, 130만 명의 주민이 허리케인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었다. 기아대책은 미국 기아대책 등 국제 파트너십을 통해 공동으



로 아이티 재난현장에 긴급구호를 펼칠 계획이다. 김태일 기아대책 국제사업부장은 "아이티는 현재 대통령이 부재한 상황으로 정부의 피해 상황 파악이 늦어지고 있다"며 "물재과 등 수인성 질병으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돼 국제사회의 관심이 절실한 상황"

이라고 말했다. 기아대책은 9일 모금페이지(<https://goo.gl/rvzn6>)를 열고 긴급구호 모금을 시작했다. 아이티를 도우려면 02-544-9544로 전화하거나 KEB하나 363-933047-37437 (예금주: (사)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로 후원금을 기부하면 된다.

한국장애인선교 30주년기념식 개최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한국의 장애인선교 30년사 발간회도

장애인선교와 복지의 발전을 위해 힘써온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회장 윤형영)가 지난 9월 29일 서울 종로 소재의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창립 30주년 기념식과 장애인선교 및 장애인 복지 발전을 위해 활동한 발자취와 더불어 장애인 선교 발전방향 등을 한 권에 담은 '한국의 장애인선교' 발간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은 윤형영 회장(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회장)의 환영사와 이병돈 상임대표(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축사, 공로패 수여 순으로 진행되었다.

공로패 수여는 장애인선교와 복지 발전을 위하여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30년



발전에 공헌한 단체에 수여되었으며, 정권 목사(무지개선교회), 정형석 목사(한국밀알선교단), 김영원 목사(한국밀알선교단), 여광조 목사(대전밀알선교단), 김광열 목사(한파음복지문화비전센터), 김경원 목사(광주농아복지재활센터), 박영식 목사(임마누엘교회), 박서근 목사(미분복지비전센터), 남재중 목사(부산밀알선교단)가 공로패를 받았다.

이외에도 30주년을 맞아 양동춘 목사(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초대회장)의 설교, 손봉호 교수(기아대책 이사장)의 강의, 이진원 목사(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부회장)의 실무자 교육, 이준우 교수(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지도자 교육으로 진행됐다.

태백산교회 입당, 지역복음화 총력

강원동지방회

강원동지방회(회장 유흥열 목사) 태백산교회(담임 장재순 전도사)는 지난 10월 8일 오전 11시 태백산교회 기도원에서 새성전 입당예배를 드리고 지역복음화를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예배는 강원동지방회 회장 유흥열 목사의 사회로 부회장 진장길 목사의 기도, 원주반석교회 우영하 목사의 성경봉독, 증경총회장 이창재 목사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이 목사는 속 4:6 말씀을 본문으로 '오직 여호와와 신으로'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모든 일은 힘으로도 안되고 능으로도 안되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땅끝까지 복음 전파를 위해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했다. 이어 태백산교회의 장재순 담임전

도사는 담임인사를 통해 태백산교회를 향한 격려에 감사한 마음을 전했으며 증경총회장 이창재 목사의 축도로 입당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행복한순복음교회 6주년 기념 및 이전 감사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땅끝까지 복음 전파 사역감당 다짐

대구경북지방회

대구경북지방회(회장 신재영 목사) 행복한순복음교회(담임 윤철희 목사)는 지난 10월 6일(목) 오전 11시 교회창립 6주년 기념 및 이전 감사예배를 드리고 다시 한 번 모든 제직과 성도들이 동일한 비전과 사명감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날 예배는 지방회장 신재영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부회장 정진학 목사의 대표기도, 서기 김광동 목사의 성경봉독, 담임팀 찬양팀의 특송, 교단 증경총회장 배진기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배 목사는 빌 4:19-20 말씀을 본문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행복한순복음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오직



말씀, 오직 예수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믿음의 그릇을 잘 준비하여 채우시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고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귀주는 교회로 든든히 서 나갈 것"을 당부하고 창립 6주년을 맞이하여 새롭게 교회를 이전한 행복한순복음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했다.

이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전 참석자들의 합심 기도한 후 재무 허만운 목사의 헌금기도에 이어 증경회장 강태진 목사는 축사를 통해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말씀으로 충만한 목회자와 성도들이 될 것을 축복했으며 담임 윤철희 목사의 인사 및 광고, 증경회장 김영준 목사의 축도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북핵위협, 지진 등 위기 상황 해결 위해 기도

인천지방회

인천지방회(회장 홍영광 목사)는 지난 10



월 13일(목)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을 맞아 야외회를 갖고 심신의 피로를 풀고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북핵위협을 비롯한 지진 등 이 땅에 다가온 온갖 위기 상황을 하

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런 아침 회원들은 부천 송내역을 출발, 강원도 속초에 도착하여 먼저 회원들 모두 합심하여 나라와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 국가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기도한 후 중식 후 오색약수터로 이동했다.

오색천 산길로 등산하며 기암괴석과 투명하도록 맑은 물 그리고 조금은 이른 가을 정취를 만끽하고 오색 온천에서 온천욕 후 한계령 휴게소에서 잠시 쉬를 가졌다. 회원들은 두촌 휴게소에서 가마솥 설렁탕으로 저녁식사를 한 후 출발지 송내역에 도착, 아침 지만 다음에 또 만날 것을 기약하며 사역지로 향했다.

이번 야외회에는 증경회장 반인홍 목사(송도순복음교회)가 버스 대차비를 후원하는 등 사람이 모여져 사랑의 교제시간을 가졌다.

세계성막복음센터 방문, 성경말씀 이해 큰 도움

경기북지방회

경기북지방회(회장 김장수 목사)는 지난 10월 11일(화) 추계야유회로 오산에 위치한 세계성막복음센터를 방문하고 성경 속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다.

경기북지방회 회원들은 모세오경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을 세계 최초로 실내에 성막의 규격, 구조, 율타리, 바깥줄, 성소, 지성소 등에 대하여 성경의 치수에 따라 원형 그대로 복원하고 또 당시의 많은 유물들을 복원하여 전시하고 있는 세계성막복음센터를 둘러보고 역할과 의미 등을 깨닫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알기 어려웠던 성막을 눈으로 직접 체험하고 출애굽시 유대인들의 하나님 섬김을 올바르게 이해하게 되었으며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내주하심을 실감하게 되었다.

회원들은 지방회장 김장수 목사의 설교로 저녁식사를 함께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각자의 목양지로 향했다.

동부전선 백두산 부대 수색대대 방문 위로

북핵위협 상황 속 철통경계 장병 위문,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하길 기도

경기남지방회

경기남지방회(회장 김기인 목사)는 지난 10월 13일(목)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로 우리나라의 안보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국토의 최전방에서 국토수호를 위해 헌신 중인 장병들을 위문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지방회 회원들은 동부전선 백두산 부대 수색대대를 방문하여 준비해 간 위문품을 전달하며 장병들을 위문했다.

먼저 지방회 증경회장 정석현 목사의 사회로 부대 대대장의 환영 인사에 이어 교단 군선교위원장 박순용 목사의 인사말과 지방회장 김기인 목사의 설교가 이어졌다.

김 목사는 신 20:1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아무리 대적들이 강하게 나온다 해

도 두려워하지 말고 강한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면서 "여러분들이 있기에 후방에서 부모님들과 가족들이 편히 지내고 있으며 여러분들이 흘린 땀방울은 사회에 나가서도 크게 쓰임을 받을 것이며, 복무 기간 동안 맡은바 주어진 일에 충성된 장병들이 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정석현 목사의 격려사와 지방회 총무 박홍열 목사의 부대와 장병들과 가족을 위한 기도와 증경회장 김남수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 장병들과 함께 부대에서 마련한 음식을 먹으며 친교를 나누고 현재 부대에서 사용 중인 전투 장비를 소개받고 부대를 떠나 을지전망대를 찾았다.

바로 눈앞에 펼쳐지는 비무장지대와 북한군의 초소를 보며 분단의 아픔을 새삼 느끼면서, 북한군들이 대량 침투할 목적으로 휴전



선 남쪽지역 수백미터까지 파고 들어온 제4땅굴을 찾았다.

안보 영상을 보면서 당시 위로는 평화 공세를 하며 침략의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아래로는 땅굴을 파 내려왔다고 하니 저들이 바라는 속셈이 무엇인지는 죄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이날 함께 부대를 방문한 조동숙 사모(오성시랑교회)는 우리가 평화스럽게 살 수 있

는 것이 바로 이러한 장병들이 있기 때문이라며 감사를 전했고, 또한 생애 처음 부대와 전방지역을 방문한 여성 교역자들은 나라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해야겠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날 지방회 회원들은 춘천의 명물인 닭갈비를 먹으며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다.



■ 생명의 말씀 ■

외롭지 않습니다

요 14:16-17



최형택 목사

· 교단 총무
· 평양은혜와전리교회 담임

비 내리는 날에 빗소리를 들으면 가슴 외로워 질 때가 있습니다.

비 오는 날에 처량하게 버려진 가구들을 보면 한 때는 주인의 사랑과 관심을 독차지 했던 가구였을텐데 이제 쓸모없게 되어 버려졌구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네 인생과 비슷한 모습인 것도 같습니다. 우리도 한때는 행복하고 보람있는 인생을 살지만 또 어느 순간 외롭고 고독해질 때가 있습니다.

지녀들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면서 살았건만 자식이 부모의 깊은 마음을 몰라 줄 때 외로워집니다. 또, 남들보다 더 많은 물질이 있고 좋은 환경 속에서 살지만 화려함 뒤에 슬픔, 군중 속에서 고독을 느끼며 외로움 속에 뒹뒹치며 살

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연예인들이 자살을 합니다. 그중 대부분이 교회를 다니던 신자였다는 것이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노아를 창조하셨지만 유독 아담 혼자 외롭게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좋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창 2:18)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독하고 외로운 모습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치매의 원인은 무려 70-80%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뇌세포의 퇴행성 변화로 발생하는 알츠하이머병 치매가 50-60%를 차지합니다.

알츠하이머병은 뇌 속에 이상 단백질이 쌓여 뇌세포가 점점 파괴되고, 뇌 조직이 쪼그라들면서 뇌 기능을 상실하는 병으로, 뇌세포가 파괴되는 과정에서 아세틸콜린(Acetylcholine)이라는 신경전달물질이 뇌 안에 크게 줄어들게 되는데 이 때문에 치매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외로움을 느끼며 사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두 배나 알츠하이

머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치매뿐 아니라 모든 질병은 외로움과 친밀합니다.

한번뿐인 우리 인생을 외롭게 살아선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량하신 것은 외로움을 극복하고 감동으로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요 14:16) 예수님이 공생애 속에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것과 같이 성령님도 나와 늘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성령님이 오셨을까요?

오늘 본문말씀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우리와 함께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끝까지 나와 함께 생활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리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도 계시겠음이라”(요 14:17)

바로 내 안에 계십니다. 이 엄청난 신비로운 사실을 내 안에서 발견하고 또 재발견하여 감동의 도가니로 살아야 합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요 14:20)

이보다 더한 신비로움이 더 어디 있습니까?

성령께서 내안에 계신다는 사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알지도 보지도 못합니다.

세상은 알 수도 없지만 너희는 알지니 말씀으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진히 가르치시고, 능력의 역사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혼자자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 외롭습니까?

물론 돈이 없어서, 환경이 열악해서, 배신을 당해서, 나를 이해해 주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못하고 나 혼자라는 생각 때문에, 심지어 내가 낳은 자식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기에, 아무도 나를 격려, 사랑

해주지 않기 때문에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 곁에 와 계십니다. 이 사실을 성경적으로 알고 있지만 생활 속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매일 매순간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을 알고 경험한다면 매순간마다 감격의 찬양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예수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데 감격이 없습니까?

성령님은 내가 무엇에 잘 넘어지고 어떤 분위기에 얽히고 나의 부족한 것이 어떤 부분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잘 알고 있는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이렇게 잘 넘어집니다. 주님을 의지하오니 저를 도와주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길을 잃고 방황할 때 “성령님, 힘이 되어 주세요.”

버림받고 외로울 때도 “성령님, 위로해 주세요.”

성령님께서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자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셋째는 이슬람 율법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할랄 인증은 이슬람 성직자 단체에서 발급하게 되고, 인증을 받으면, 이슬람 감독관이 나오게 되고, 그들이 경영진과 직원들에게 이슬람 율법을 교육시키게 되므로, 결국은 이슬람 율법의 노예가 된다는 것이다.

넷째는 사업수지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할랄식품의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소고기와 양고기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양고기가 별로 생산되지 않고, 소고기도 비싼 사료를 먹여 키우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다섯째는 할랄인증 사업은 원리주의 무슬림들의 테러 자금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가 익산에 할랄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건축비를 지원하는 등의 행태는 실익은 적으면서 자칫하면 이슬람의 포교를 돕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이제라도 정부는 할랄식품 육성 사업에 대한 전반적이고도 세밀한 조사를 통하여 재검토해야 하며, 그 문제점이 여실하면 즉각 철회하도록 해야 한다. 왜 속빈강정과 같은 것에 매달려 국민의 원성을 사고, 국가의 안위에 위협을 초래하려 하는가?

동 정

한남대, ‘캠퍼스 미션’ 창간



한남대(이덕훈 총장)가 개교 60주년을 맞아 대학 캠퍼스 선교 잡지인 ‘캠퍼스 미션’을 발행하고 학원복음화와 대학생 선교에 앞장서고 있다. ‘캠퍼스 미션’ 잡지는 무엇보다 대학생들과의 소통을 통해 캠퍼스 선교현장의 고민과 기대를 진솔하게 담아냈다고 말한다.

기부실천 송창익 회장



비영리 민간단체법인으로 정부지원 없이 자력으로 나눔을 이어온 한국새생명복지재단이 어느덧 10주년을 맞았다. 100%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한국새생명복지재단의 송창익 회장(신촌성결교회)은 전 국민이 기부하는 나라, 가난 때문에 미래를 포기하는 사람 없이 모두가 행복해지는 날을 꿈꾸고 있다.

한일장신대 설립자 조명



한일장신대(총장 오덕호) 설립자인 서서평 선교사를 조명하는 제9차 서서평 학술대회가 18일 오후 2시 전주중앙교회에서 열렸다. 이 학술대회에서는 ‘한국인을 섬긴 서서평 선교사의 영향’을 주제로 ‘여성주의 관점에서 본 서서평의 생애사 연구’ ‘서서평 선교사와 호남의 영성운동가들’ ‘제주 선교와 서서평의 역할’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생명나무교회 창립 감사예배



전 국가조찬기도회 사무총장 장현일 목사가 개척한 생명나무교회가 23일 오후 5시 창립감사예배를 드린다. 이날 예배는 김영진 장로(전 농림부장관)와 임동진 목사(한국기독교문화예술인연합회 회장)가 축사를 전한다. 장현일 담임목사는 “통일시대를 준비하며 다음세대를 세우는 것을 교회의 비전으로 삼고 있다.”면서 기도를 요청했다.

북한의 핵위협에 즈음한 우리의 성명

정부가 주한 미군의 사드 한반도 배치를 결정하자 이 나라의 종북·좌익 세력들은 총 결기하여 사드 배치 철회를 조직적으로 외쳐 대고 있다. 북한은 지난 2월 노동당의 대남혁명 전위기구인 소위 “반제민전” (반제민족민주전선)을 통해 “사드의 조선반도 배치는 이 땅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위험 천만한 망동”이라며 국내외 진북 성향 단체들에 대해 “전쟁 불안감을 조성하라”고 공개적으로 지시한 바 있다. 그런데 이 나라 일부 기독교단체가 이런 정단에 총추며 사드 배치 반대·철회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사드”(THAAD)가 무엇인가? 그것은 인명 살상용 공격 무기가 아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조금이라도 지켜보려고 우리의 경비 지불도 없이 방위 동맹인 미군이 이 나라에 설치해 운용하도록 하는 우리 정부의 국방 정책이다. 그렇건만 정부가 결정한 사드 배치 결정을 반대하고 철회를 요

구한다는 사실은, 북한 김정정은 집단의 유사시 미사일과 핵공격에 우리는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으라는 주장과 같다. 그것은 또한 ‘사드배치를 총력반대하라’는 북한 김정정은 집단의 대남 지령을 준수하는 작태가 되고 있다. 바로 이들이 북한 김정정은 테러집단을 비호·옹호하는 자들이 아니고 무엇인가?

저 테러집단의 가공할 불시 핵 미사일도발을 방어하기 위해 설치하는 우리 국군과 미군이 방어 무기 대비를, 기독교의 이름으로 반대하니 과연 누구를 위한 반대인가? 염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테러집단을 비호하니 천인이 공노할 반역행위가 아니고 무엇인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온갖 국가 보호와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으면서도, 이 나라의 국토방위와 안전이 아무 것도 아니라면, 그대들은 이 나라를 떠나주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임원명단

△고 문 : 조용목 목사(예하성)
△고 문 : 최보기 목사(기침)
△고 문 : 배기은 목사(예장호헌)
△고 문 : 배진기 목사(예하성)
△고 문 : 이준원 목사(예장합동총신측)
△고 문 : 김상용 목사(예하성)
△고 문 : 최상열 목사(예장동선)
△고 문 : 윤덕남 목사(기침)
△고 문 : 임종달 목사(예하성)
△이 사 장 : 배기은 목사(예장호헌)

△대표회장 : 이용주 목사(예하성)
△사무총장 : 김용도 목사(기침)
△서 기 : 박찬목 목사(예장합동보수)
△부 서 기 : 김동민 목사(예장동선)
△회 계 : 이상용 목사(예장합동진리)
△부 회 계 : 최상호 목사
(대한예수교오순절하나님의성회총회)
△감 사 : 공병철 목사(예장합동진리)
△감 사 : 이상익 목사
(예장연합오순절 교회총회)

가 입 교 단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총회장 : 유영식 목사, 총무 : 조원희 목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총회
총회장 : 조남영 목사, 총무 : 최형택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진리)총회
총회장 : 이영만 목사, 총무 : 이상용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호헌)총회
총회장 : 장완준 목사, 총무 : 도용호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보수진리)총회
총회장 : 김영길 목사, 총무 : 정오영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신측)총회
총회장 : 김병근 목사, 총무 : 최철호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합동)총회
총회장 : 이한영 목사, 총무 : 구상희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보수)총회
총회장 : 이 위 목사, 총무 : 유종근 목사
대한예수교연합오순절교회총회
총회장 : 이상익 목사, 총무 : 권오성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동선)총회
총회장 : 최상열 목사, 총무 : 김동민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성목총회
총회장 : 황상호 목사, 총무 : 최천봉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영신총회
총회장 : 김혜순 목사, 총무 : 조영근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 김명희 목사, 총무 : 안형숙 목사
대한예수교오순절하나님의성회총회
총회장 : 김지현 목사, 총무 : 최상호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수도)총회
총회장 : 박경숙 목사, 총무 : 한정희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은혜)총회
총회장 : 김태진 목사, 총무 : 송계바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고려)
총회장 : 홍복두 목사, 총무 : 박영출 목사
한국 H I M 선교총회
총회장 : 홍정식 목사, 총무 : 박호중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진리총회
총회장 : 박태영 목사, 총무 : 김은실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장신)총회
총회장 : 김효중 목사, 총무 : 곽명선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개혁총회
총회장 : 이성재 목사, 총무 : 김영철 목사



사단법인 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
THE COUNCIL OF CHRISTIAN DENOMINATIONS IN KOREA
서울시 영등포구 63로 32 라이프콤비빌딩 811호
TEL : (02) 786-1601~4, FAX : 782-8095
http://www.ccdk87.com, ccdk87@komnet.net

목회자 칼럼

서헌철 목사 // 장로교신학 학장, 장신교회 담임

끝까지 달려가는 은총을 누리자!

삶은 원래 힘든 것입니다. 삶이란 우리 생각대로 잘 풀리지 않습니다. 마음먹은대로 세상이 쉽게 내 편이 되지도 않습니다. 기다리던 좋은 일들은 좀처럼 찾아오지 않습니다.

반면에 좋지 않은 일들은 한꺼번에 몰려들곤 합니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면 의욕은 떨어지고 자신이 점점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사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인간적인 당면이기도 하죠. 열에 아홉은 자신이 원하는대로 되지 않습니다.

역설적으로 뭐든 다 이뤄지는 세상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고 너무 짜증내지 마세요. 알고 보면 세상사람 누구나 비슷한 상황 속에서 삽니다. 제대로 씨앗을 뿌리지도 않고 기꾸려는 노력도 없이 젊음을 압박하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그저 빨리 거둘 생각부터 하는 젊음은 매우 위험하기 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설사 거둔다 해도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수확은 보잘 것 없다는 것입니다.

보기에 탐스럽게 생겼다고 채 의지도 않은 포도를 수확하면 제대로 된 포도의 맛과 향을 느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루살이처럼 살다가 인생이 아니라 먼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풍성한 수확을 위해서는 먼저 뿌리고 가꾸고 정성껏 돌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 합니다.

그 노력과 인내와 기다림이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인내란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해야 하는 고통이 아닙니다. 꼭 이루고 싶은 것을 찾아 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통과해야 할 관문입니다.

그 시련의 관문을 거치지 않은 사람에게는 달콤한 열매를 맛볼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법입니다. 아홉 번 실패와 좌절이 있고 나서야 비로소 열 번째에 성공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아니 더 많은 실패 끝에 한 번의 성공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이 인생임을 인정하고 사십시오.

삶을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의 작은 실패조차 훗날 큰 성공의 주춧돌이 될 거라고 믿는 신념입니다. 짜릿한 환희와 기쁨의 시간을 만나기 위해 지금은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말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십시오. 살면서 가장 슬프고 비참해지는 일은 자신의 길을 가지 못하고 병환과 두려움으로 서성거리는 것입니다. 지금 인생의 험가 쟁쟁 내리쬐릴 때 그대의 젊음을 맘껏 불태우십시오. 비에 젖은 축축한 벚꽃처럼 흐느적거리며 사는 것은 살아있어도 더 이상은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산다는 것은 실패하지 않을가 두려움에 발발 떨며 움츠러드는게 아닙니다. 태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화끈하게 태워버리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가고 싶은 길이 있으면 끝까지 걸어가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이며 그것이 진정 살아 있는 사람이 보여 내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출처: 정균승 지음. 왜라는 질문을 하고 어떻게 라는 방법을 찾아 나서다. 프롬북스 2015.7.16)

개혁자들은 목숨을 내어놓고 신앙의 순수성을 외쳤습니다. 따라서 종교개혁일(10월 31일)을 앞둔 우리는 자신의 신앙부터 개혁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작금에 우리 주위에는 힘들다고 하는 이들이 점점 늘어만 갈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이미 인내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 필연성에 대한 약속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 할 수 없는 크나큰 보상 곧 구속(救贖)에 의한 구원(救援)이 보장 된다는 것입니다.(마 5:11-12 참조)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약속들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욕망 등의 유혹에 이끌림으로 스스로가 불행하다고 생각하여, 절망 속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계심에 대한 의심을 품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욕망의 유혹에 벗어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길을 향해 멈추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이제 인내와 인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롬 15:5-6)

여수수아 칼럼

문천우 목사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호수아교회 담임목사, 캐나다 Pacific Life Bible College 졸업(M. A.), 한세대학교 목회학석사 졸업(M. Div), 호서대학교 신학박사 졸업 Th. D), 홍익대학교 광고홍보 대학원 과정중

상처 받을 용기

(마 5:39 - 42)

어떤 자리에서였는지는 조금도 기억나지 않지만 누군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저 아세요? 사회생활하다가 보면 상처받았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뿐이니까요! 교회에서 뭘 가르치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처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다니는 겁니까?” 그 한 마디 말은 예리하면서도 묵직한 베테랑 목수의 정(鎚) 끝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말을 들은 뒤 며칠을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교회에서는 일반 사회에서보다 상처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내적 치유’, ‘상처 입은 치유자’, ‘상한 감정의 치유’ 등의 오래된 책들이 여전히 기독교 서점의 한 자리를 어엿한 스테디셀러로서 차지하고 있음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요사이에는 상처보다는 조금 더 세련된 단어인 ‘트라우마’(trauma)가 대신 쓰이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인간으로서 상처를 전혀 받지 않고 살기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것’과 ‘상처를 달고 사는 것’은 다른 문제일 것입니다. 더구나 그리스천이라는 사람이 그 상처라는 것에 남보다 더 많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것을 옷으로 덮어버릴 만한 여유가 없다는 것은 정말이지 이상하게 보입니다.

분명 성경에도 마음의 상처나 치유 등에 대한 심리학 적 접근방식은 존재합니다. 잠언의 저자도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잠 18:14) 등의 다분히 심리학적인 가르침들을 기록했고, 예수님께서도 상처 받은 사람에게는 더 세심한 배려를 보이시곤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마음치유가 단지 우리의 한상 처만 제거해주는 일종의 소염진통제일 리는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상처 자체보다는 상처를 이겨내거나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도 체질적인 변화(transformation), 즉 성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면에서 볼 때,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상처의 문제

에 대해 그토록 집요한 이유가 어쩌면 영적인 감각에 대한 오히려서 비롯되었을 수 있다는 유추를 해봅니다. 즉 ‘그리스천은 거둔단 영적인 존재’에 자신에게 접근하는 악, 죄, 자중, 불결함 등에 대해 더 깨어있을 뿐 아니라 그것들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민감함(spiritual sensitiveness)과 신경 증적인 예민함(hypersensitiveness)은 구별돼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와 교인들의 삶에는 불필요한 상처, 필요 없는 논쟁, 괜한 과잉반응, 그리고 그 흔한 ‘시합’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 중 대부분은 영적인 것과는 무관한 신경증적 과민 반응에 기인된 현상들로 보입니다. 영적이라 말하지만 실상은 지극히 육적이고 유아적인 모습들입니다. 온갖 적의, 반대, 공격과 죽음마저도 이겨내신 그리스도의 영(靈)은 단지 우리의 상처만을 치유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불필요한 것들에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영적인 어른’으로 성장시키시는 분입니다.

올림픽의 꽃이라 불리는 마라톤에 참가하는 선수들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들로부터 삶에 대한 많은 교훈들을 얻게 되는데, 오직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42.195Km라는 거리를 맹렬히 달려가는 그 놀라운 몰입도와 노력 외에도 매우 중요한 한 가지 가르침을 더 얻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사소한 일에 신경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길가에 서 있는 관광객 중 누군가 야유를 보내든, 마라톤의 옷이 촌스럽다고 빈정대든, 경기는 안 보고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다 해도 개의치 않습니다. 그럴 여력도 없었지만, 마라톤러들에게 그들은 그저 삶의 여정에서 지나치는 배경일 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상처를 시험을 분노를, 쓰라림을, 억울함을 달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물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없거나, 성숙하지 않았거나. 이제 우리는 상처를 치유 받을 믿음을 넘어서는, 상처를 견디어 내거나 초월할 수 있는 용기를 구하는 성숙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복음신문사 창간56주년기념 감사예배

집필자 및 공로자에 대한 감사패 증정식도 함께 가저

(주)복음신문사(사장 나서영 목사)는 지난 10월 17일(월)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지하문로 AWW컨벤션터에서 창간 56주년기념 감사예배 및 감사패 증정식을 갖고 복음신문의 창대한 도약을 위해 집필진과 임직원들이 합심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날 예배는 한인수 장로(TV텔레번트)의 사회로 이길용 목사(기드온 전 동문회장)의 기도, 진미정 교수(대한김리회 신학)의 은혜로운 특송, 유순임 목사(사. 민족복음화운동여성본부 총재)의 마 19:46-52 말씀을 본문으로 한 ‘오직복음’이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유순임 목사는 설교를 통해 “복음신문 56년의 역사는 성경을 통해 과거·현재·미래를 조명하는 복음의 역사였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복음신문이 이러한 사명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감작스러운 사고로 참석치 못한 나서영 사장을 대신해 홍순만 부사장이 인사를 전했다. 나서영 사장은 “복음신문의 지면을 빛내주신 집필진들께 감사 드리는 마음으로 작은 정성을 담아 이 감사패를 준비



했다”며, “앞으로도 복음신문과 독자들에게 은혜가 되는 귀중한 옥고를 보내주시기 바란다”고 부탁했다.

이날 축사에는 유영섭 목사(사.예총연 대표회장)·이종복 목사(예장브니엘 중경총회장)가, 격려사에는 조성훈 목사(사.예정연 대표회장)·박종선 목사(사.한기총 총무)·박태남 목사(한국오순절교회협의회 상임회장)가 각각 축하의 말을 전했다.

계속된 예배는 2016년 오스트리아 국제공쿠르 3위로 입상한 피아니스트 양현비 양의 특별연주, 김진호 목사(기감 전 감목회장)의 축도 후 기념촬영으로 예배를 마쳤으며, 권영식 목사(복음신문 강원지사장)

의 식사기도와 오찬으로 모든 행사를 마쳤다.

이날 감사패를받은 집필자 및 공로자는 다음과 같다. 김철환 목사, 손선영 목사, 김형태 박사, 전태규 목사, 조갑분 목사, 신현수 박사, 김두현 박사, 이선 목사, 강종구 목사, 정성훈 목사, 정재규 목사, 나건용 목사, 유덕식 목사, 박봉수 목사, 이상열 목사, 이종택 목사, 김용국 목사, 서헌철 목사, 육병길 목사, 김국경 목사, 이용균 목사, 박종호 목사, 엄인형 목사, 원종문 목사, 우선휘 목사, 김현수 목사, 박영률 목사, 전용만 목사, 이민홍 목사, 심재선 목사, 임성택 목사, 최만수 목사, 손배남 박사, 신재용 목사, 고흥기 목사 외 다수.

2016 한양대 목회자 세미나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 주제로 2박 3일 릴레이 강의

한양대학교 교목실이 11월 7~9일 교내 다솜 채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라는 주제로 2016 한양대학교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한다.

전국교회 목회자와 전도사, 신학생 모두 참여할 수 있으나 주최측은 원활한 강의 진행을 위해 선착순 50명만 모집한다고 밝혔다.

7일 오후 2시에 시작되는 개회예배에는 창교회 김기서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제1강의 ‘형성과 설교’를 주제로 강단에 선다. 이어 임영수 목사(모세골), 이민재 목사(은평교회), 이강학 교수(옛볼트라티 신학대학원

대학교), 최대광 목사(정동제일교회), 이천진 교수(한양대학교), 홍순원 목사(기장영성수련원), 마지막 순서로 윤병선 목사, 최경원, 최재숙 씨가 세미나를 인도한다.

일정 중에는 순례기도 및 신학, 아침 콘서트, 거룩한 찬양 등의 순서도 포함돼 있다.

참가비는 숙식 및 교재 포함 15만원이며, 10월 31일까지 한양대학교교회와 교목실(02-2220-1468)로 신청하면 된다.

2박 3일 간의 모든 과정을 수료한 이들에게는 한양대 총장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된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17년도 목사고시 공고

2017년도 목사고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서 류 접 수 : ① 일시: 2016. 8. 31(수) 17: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② 장소: 총회본부(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③ 방법: 등기우편
- * 목사고시청원서 작성 및 제출 안내: 총회홈페이지(www.aogk.org)→자료실→서식다운로드→교단서식→제15호 목사고시청원서(구비서류첨부)→2부 작성→지방회에 제출→지방회임원회 심의→1부 지방회 보관, 1부 총회본부에 제출.
- * 총회목회대학원 2학년 재학생은 우선 ‘재학증명서’를 제출하고, 내년 1월 졸업과 동시에 ‘졸업증명서’를 제출한다.
2. 서 류 심 사 : ① 일시: 2016. 9. 8(목) 오전11시 ② 장소: 총회본부 회의실
3. 오리엔테이션: ① 일시: 2016. 9. 22(목) 오전11시 ② 장소: 총회목회대학원 강의실
4. 목사고시료 : ① 납부일: 2016. 8. 31(수)까지 ② 금액: 50만원
③ 입금계좌: 국민 061701-04-17686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5. 목사고시 : ① 일시: 2017. 2. 20(월)~21(화) 오전10시 ② 장소: 총회목회대학원 강의실
6. 전도사 경력 계산은 만으로 하되, 계산일은 4월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7. 직장파 목사직은 겸할 수 없으므로 직장을 가진 자는 목사고시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8. 목사고시 응시 자격은 헌법 제37조 및 헌법시행규칙 제13조를 준용한다.
9. 서류심사 이후에는 목사고시 서류일체와 고시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 회 장 목사 조남영 고 시 위 원 장 목사 김인규
총 무 목사 최형택 고시위원회서기 목사 이석호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제65차 총회 제3회 실행위원회

- 아래 -

1.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본 교단 제65차 총회 제3회 실행위원회를 교단 헌법 제8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016년 10월 25일(화) 오후 1시 (12시부터 점심식사)

2) 장 소 : 총회본부(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TEL. 02-2675-5181~3)

*점심식사 등 준비관계로 참석여부를 10월 20일(목)까지 총회본부(02-2675-5181~3)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9월 24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총 회 장 목사 조 남 영
총 무 목사 최 형 택

150-1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TEL 02)2675-5181~3 Fax 02)2677-5181 http://www.aogk.org

패키지여행 / 허니문 / 크루즈 / 골프 / 어학연수

적립식여행 시스템으로 목돈의 부담없이!!

여행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합니다.

매월 적립식 납입으로 부담없이
납입기간 내 완납 시 언제든지 출발가능
타인에게 양도 및 양수가능
고객의향에 따른 맞춤 설계시스템



씨지투어

CG TOUR

(주)씨지투어

www.cgtour.co.kr

TEL : 02)903-4744 /

FAX : 02)903-4745 /

HP : 010-2339-7601



영신상조(장례전문) 100% 후불제

(주)안양장례식장 경영

홈페이지 : www.영신상조.kr

30년을 믿음 안에서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온 영신상조는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최저의 비용, 최고의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품 45인승 고급버스, VIP리무진(택일), 영정꽃, 장례상품 일체, 전문장례지도사,
내역 상례도우미, 총괄전문의 < 1호 196만원 2호 3호 는 가족들의 선택임 >



총괄경영주
박인안 장로



▲ 생화사진틀(선택형)



▲ 45인승 버스



▲ 최고급 리무진



▲ 근조기



콜전화 : 031)444-5566 / 031)386-5566(011-896-7100)

<최신추모관 특별혜택>

(사)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 2016 정기총회

일시 2016년 10월 28일(금) 오전 11시

장소 은혜와진리교회 영등포성전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5가 89-1(지하철 9호선 선유도역 2번출구)

임원명단

△고 문 : 조용목 목사(예하성)
△고 문 : 최보기 목사(기침)
△고 문 : 배기은 목사(예장호현)
△고 문 : 배진기 목사(예하성)
△고 문 : 이준원 목사(예장합동총신측)
△고 문 : 김상용 목사(예하성)
△고 문 : 최상열 목사(예장동신)
△고 문 : 윤덕남 목사(기침)
△고 문 : 임종달 목사(예하성)
△이 사 장 : 배기은 목사(예장호현)

△대표회장 : 이용주 목사(예하성)
△사무총장 : 김용도 목사(기침)
△서 기 : 박찬목 목사(예장합동보수)
△부 서 기 : 김동민 목사(예장동신)
△회 계 : 이상용 목사(예장합동진리)
△부 회 계 : 최상호 목사
(대한예수교오순절하나님의성회총회)
△감 사 : 공병철 목사(예장합동진리)
△감 사 : 이상억 목사
(예장연합오순절 교회총회)

가입교단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총회장 : 유영식 목사, 총무 : 조원희 목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총회
총회장 : 조남영 목사, 총무 : 최형택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진리)총회
총회장 : 이영만 목사, 총무 : 이상용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호현)총회
총회장 : 장완준 목사, 총무 : 도용호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보수진리)총회
총회장 : 김영길 목사, 총무 : 정호영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신측)총회
총회장 : 김병근 목사, 총무 : 최철호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합동)총회
총회장 : 이한영 목사, 총무 : 구상희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보수)총회
총회장 : 이 위 목사, 총무 : 유종근 목사
대한예수교연합오순절교회총회
총회장 : 이상억 목사, 총무 : 권오성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동신)총회
총회장 : 최상열 목사, 총무 : 김동민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성목총회
총회장 : 황상호 목사, 총무 : 최천봉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영신총회
총회장 : 김혜순 목사, 총무 : 조영급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 김병희 목사, 총무 : 안형숙 목사
대한예수교오순절하나님의성회총회
총회장 : 김지현 목사, 총무 : 최상호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수도)총회
총회장 : 박경숙 목사, 총무 : 한정희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은혜)총회
총회장 : 김태진 목사, 총무 : 송계바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고려)
총회장 : 홍복두 목사, 총무 : 박영출 목사
한국HIM선교총회
총회장 : 홍정식 목사, 총무 : 박호중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진리총회
총회장 : 박태영 목사, 총무 : 김은실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장신)총회
총회장 : 김효종 목사, 총무 : 광명선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개혁총회
총회장 : 이성재 목사, 총무 : 김영철 목사



사단법인 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
THE COUNCIL OF CHRISTIAN DENOMINATIONS IN KOREA
서울시 영등포구 63로 32 라이프콤비빌딩 811호
TEL : (02) 786-1601~4, FAX : 782-8095
http://www.ccdk87.com, ccdk87@komet.net

홈페이지: www.agpgs.or.kr

2016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 교육목적

본 대학원은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사안수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성경적 신앙의 바탕 위에서 가르치고 훈련하여 착하고 충성된, 신실한 목회자를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원훈

- 자질을 갖춘 소명자
- 진리충만 은혜충만한 소명자
- 복음전파에 목숨을 건 소명자

1. 지원자격

학 과	과 정	수업 연 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석사 (M.M)	2년4학기 (40학점)	- 본 교단의 소속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의 신학교 졸업자(예정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허락을 받은 자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 ②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③ 추천서
 - ④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자)
 - ⑤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⑥ 가족관계증명서
 - ⑦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 수시
 - ② 원서접수 : 수시
 - ③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 나길 8 (총회목회대학원 교학처)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① 전 형 료 : 50,000원(계좌로 입금)
- ② 계좌번호 : 농협 302-0928-2133-91(예금주 임종달)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M)학위를 수여한다(교단 인정).
- ② 본 교단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③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에 실시한다.
- ④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교학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 02)2677-0692~3

● 원서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02)2677-0692~3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홈페이지: www.agtc.or.kr

2016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 신·편입생 모집

● 설립목적

본 신학교는 신실한 사명자들을 성경적 신앙의 바탕 위에서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거룩한 성품과 오순절 신학을 겸비하여 이 시대가 요청하는 사명자를 배출함으로 한국과 세계복음화에 헌신할 영적 지도자를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교육목표

- ① 성경적 오순절 신학의 연구와 정립
- ② 거룩한 성품과 성령의 능력이 겸비된 일꾼 양성
- ③ 건강한 교회를 세울 참신한 지도자 양성

● 교훈

- 자질을 갖춘 소명자
- 진리충만 은혜충만한 소명자
- 복음전파에 목숨을 건 소명자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년 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4년8학기 (140학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 -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졸 이상의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은 자
신학과 (편입생)		4년제 대학졸업자 : 3학년에 편입 - 전문대 졸업자 : 2학년에 편입 -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할 경우 해당 학년 편입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② 담임목사 추천서
- ③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④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⑤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자)
- ⑥ 건강진단서(HIV포함)
- ⑦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⑧ 가족관계증명서
- ⑨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 수시
- ② 원서접수 : 수시
- ③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총회신학교 교학처)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① 전 형 료 : 30,000원(계좌로 입금)
- ② 계좌번호 : 농협 302-0928-2133-91(예금주 임종달)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본 교단 전도사 임명자격을 부여한다.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을 부여한다.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신학교 교학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 02)2677-0692~3

● 원서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02)2677-0692~3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기자회견문

송춘길 목사

“한국교회 개혁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대회”

● 일시 : 2016년 11월 5일(토) 오후 2시 ~ 오후 4시 30분 ● 장소 : 서울역 광장



송춘길 목사

11월 5일(토) 오후 2시 서울역 광장, ‘한국교회 개혁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대회’.

2013년 WCC부산 총회 반대운동을 이끌었던 WCC 반대운동연대가 당시의 정신을 잊지 않기 위해 매년 베스코 옆 광장에서 기도회를 가져오던 중 올해로 3주년을 맞아 서울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한다는 소식이 있다. 그 취지를 연대를 책임지고 이끄는 송춘길 목사에게 질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밝혔다.

-대회를 개최하는 시간과 장소를 말해 달라.

2016년 11월 5일(토) 오후 2시부터 경배와 찬양으로 시작해서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 예배 및 결의대회로 서울역광장에서 개최한다.

-대회를 개최하게 된 주된 배경이 무엇인가?

WCC가 뿌려 놓은 거짓 사상과 죄악 동성애로부터 한국에 있는 주의 몸 된 기독교회(이하 한국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다. 2013년도에 뜻 있는 많은 교회들과 함께 본 연대가 주축이 되어 WCC 부산총회 개최반대를 위한 집회를 부산 베스코 옆 광장에서 개최한 바 있다.

당시 반대하고 나선 까닭은 WCC총회를 부산에 개최하는 것은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는 스나미로 예측하였기 때문이고, 그 예측은 지금 현실로 나타나 한국교회 전체가 침몰의 위기를 맞고 있기에, 이 위기로부터 한국교회를 지켜내기 위한 목적으로 본 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WCC부산총회는 대한민국 사회와 한국교회 안으로 세계의 동성애자들을 불러들인 통로가 되었고, 동성애 확산에 기폭제로 작용하여 2014년 신촌에서의 퀴어 축제를 비롯하여 2015, 2016년 서울광장에서의 퀴어 축제를 낳은 도화선이 된 것이다.

또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을 비롯한 NCK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2014년도에 로마교 가톨릭과 일치를 위한 신앙과지체협의회를 창립하게 된 축재제가 되기도 한 WCC부산총회이다. 이는 종교

개혁 500년사와 한국교회 130년 역사를 더 이상 이어가지 못하게 종말을 고해버린 배교, 배도행위이다. 이러한 불행의 사태를 막기 위하여 당시 WCC부산총회를 반대하고 나섰던 것이었으나 한국교회 다수는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세계 기독교 올림픽이니 뭐니 선전하며 WCC총회개최를 강행하였다. 가톨릭이 어떤 종교인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온갖 우상을 다 숭배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을 처참하게 가장 많이 죽인 로마제국의 종교가 아닌가? 이런 가톨릭이 어떻게 주의 몸 된 기독교회란 말인가? 이러한 로마교 가톨릭에게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을 비롯하여 NCKK를 일지 시켜 버린 배교, 배도를 낳게 한 아비가 WCC이고 축재제 역할이 WCC 부산총회이다.

이 아비는 죄악 동성애를 옹호, 변호, 지지, 용인, 비호하는 결과를 대한민국 사회와 한국교회 안에 남기까지 하였고 이제는 한국교회를 침몰의 위기 상황으로 이끄는 데까지 이르렀다. 지금 나서서 개혁의 불을 지피지 아니한다면 한국교회는 그야말로 더 이상 역사를 이어가지 못하게 되는, 회생 불능상태에 빠져들기에 두고만 볼 수 없어 한국교회의 개혁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굳이 장외 집회를 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일부에서는 장외 집회가 기독교회에 덕이 되지 못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모르는 소리다. 나서지 못하게 사탄이 손발을 묶어 버리려는 미혹의 소리다. 지금 한국교회의 상태는 배가 침몰하는데 격실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 세상 모르고 평안히 있음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정신을 차려야 한다. 이런 상태가 바로 한국교회를 빠르게 침몰케 하는 원인이다. 하. 나로서 한국교회를 침몰 시키려는 대적과 소리 높여 싸워 지켜내야 하는데도 말이다.

대적이 쳐들어오면 파수군은 나팔을 불아야 하고 도적이 들면 개는 짖어야 하고 어둠이 몰려오면 횃불을 높이 들고 나서야 한다. 파수군의 요란스런 나팔소리로 성읍이 지켜지고 개가 짖는 시끄러운 소리로 가정이 지켜지고, 들고 나선 횃불이 몰려오는 어둠을 물리치는 것이 아닌가? 나팔을 불지 않음에 성읍이 파괴되고 시끄럽게 짖지 않는 개로 가정이 탈락되는 것이고, 횃불을 들고 나서지 않음에 어둠이 몰려와 지배하는 것이 아닌가 말이다. 배교, 배도가 일어나도 한국교회는 잠잠하고 죄악 동성애 물결이 교회 안으로 밀려들어가 온통 적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당 격실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 잠잠한 한국교회이다. 한국에 있는 기독교회가 침몰하고 있는 데도 말이다. 마틴루터 킹 목사는 이렇게 말했다. “역사는 이렇게 기록할 것이다. 이 사회적 전환기의 최대의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끼치는 침묵이었다고”

-한국교회가 동성애와 관련하여 대처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에 불안이 많다는 소리를 들었다. 무엇 때문인가?

동성애자들 보다 더 나쁜 것이 한국교회 일각이다. 한국사회에 빛이고 소금이 한국교회가 아닌가? 이러한 한국교회가 죄악 동성애를 옹호, 지지, 비호, 확산

시키고 있으니 어찌 제 정신이라고 하겠는가? 동성애는 창조의 근본 질서를 파괴하고 인류사회 멸망을 초래하는 무서운 죄악이다. 이러한 동성애 문제가 한국 사회에 문제로 부각됨에 한국교회가 반대하고 나선 것이 2015년 서울광장 퀴어 축제 때부터다.

그러나 한국교회 내부의 상태는 어떤가? 겉 다르고 속 다르다. 동성애를 옹호, 지지, 용인, 비호, 선전하고 있지 않는가? 많은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참여하여 개최한 지난 2013년 WCC부산총회 장소에 동성애를 선전하는 부스를 설치한 것이나, 대한민국 땅에 동성애교회가 10여개 세워져 있는 것이나, 각 신학대학교에 동성애 동아리가 조직되어 활발하게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이나,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이 회원으로 활동하는 NCKK가 동성애를 지지하고 있지 않는가? 동성애는 한국 사회의 문제보다 한국교회가 더 심각한 문제다. 이미 죄악에 점령당하고 빼앗겨 버린 한국교회 현실 상태이다. 이 같은 현실 앞에 어디에도 자정의 능력이 보이지 않고 있는 한국교회이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규모가 큰 교단에 대해서도 개혁의 소지가 많다고 들었다. 말해 달라.

NCKK는 종교다원주의 WCC총회를 유지하고 개최한 단체다. 그리고 동성애를 옹호, 지지하며 공산주의라고 향간에는 규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NCKK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은 연간 1억4천 만원을 회비로 지원하여 운영되고 있다.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재정을 지원하고 있기에 이들 교단이 NCKK의 몸통이고 이들이 문제의 NCKK를 키우고 있다. 개혁되어야 할 부분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개혁의 대상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육신의 다름의 연속이다. 지난 한 해 (100회 회기)에 지출된 변호사 비용만 200,000,000원이라고 하니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리스도의 생명과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어둠에 빠져 이 세상 법정에서 옳고 그름의 판결을 구하니 빛을 잃은 소경된 상태다. 앞장서서 본을 보여 아람 대 교단들이 죄우를 분변하지 못하고 헤매고 있으니 눈이 번쩍 뜨일만한 뼈를 짚는 아픔의 개혁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한국교회의 개혁을 위한 연대의 활동이나 계획이 있다면 말해 달라.

WEA와 로마교 가톨릭과 뜻을 같이 하는 WCC는 성경적인 기독교회가 아니며, 뿐만 아니라 기독교회를 무너뜨리는 대적이다. 또한 이들이 연합하여 펼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는 완전 비 성경적이다. 기독교회가 아닌 것이 기독교회의 옷을 입고 기독교회의 흉내를 내고 이에 한국교회가 미혹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같은 사실과 함께 성경적인 기독교회의 본래의 모습을 소책자에 담아 배포하여 WCC의 거짓 사상으로 부터 한국교회를 지키고자 한다. 그 시점이 “한국교회 개혁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대회”가 개최되는 11월 5일이다.

-동성애 문제를 다른 “우리 백성이 자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라는 소책자 발행에 이어 새로운 책을 발행해서 한국교회에 배포할 것으로 이야기 되고 있다. 간략



WCC부산총회는 동성애교회가 일익을 담당했다.

하게 소개해 달라.

동성애 문제는 인류가 사회를 이루면서 있어왔던 창조의 근본 질서를 해치는 성적 타락행위이다. 그러나 근세의 동성애 문제는 68년 프랑스 혁명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개인의 권리, 즉 인권이 공공력에 의해 억압되거나 지배하지 못하도록 제도 개선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자유주의 국가를 무너뜨리기 위한 신마르크스 사상이라는 사실과 신마르크스 사상으로 자유주의 국가의 제도, 곧 평등과 인권 등을 개선시켜 이를 통해 기독교회를 무너뜨리는 정체를 이 책이 담고 있다. 한국교회가 왜 동성애를 물리쳐야 하는지에 대한 대답이 될 것이다.

책 주문은 <http://cafe.daum.net/wccpusan> 이며 무료 배포된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면?

한국교회는 인륜으로 공격을 받고 있다. 안으로는 WCC의 거짓 사상으로부터이고 밖으로는 죄악 동성애로부터이다. 이 세력들은 스나미와 같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열심이다. 반면 한국교회는 나서서 막아설 독이 없는 것과 다름없는 상태다. 한국교회가 거짓 사상과 죄악에 무너지면 그 책임은 WCC나 동성애자들

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서서 막아서지 아니한 우리들에게 있다. 나서서 막아서는 저항이 없기에 대적들은 거침없이 밀려드는 것이다. 우리를 대부분은 WCC와 동성애를 잘못이라 지적하며 우리 자신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으로 여긴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걱정할 정도라고 하지 않는가? 이는 우리 자신이 말만 하고 한국교회를 지키려고 나서는 희생이 없기 때문이다. WCC가 부산에서 총회를 개최하면서 뿌려 놓은 거짓 사상은 한국교회를 무너뜨렸기에 이쯤에서 개혁의 고삐를 당기지 아니하다가는 한국교회는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게 될 것이다. 11월 5일(토)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되는 “한국교회 개혁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대회”에 우리 자신이 일원으로 나서게 되기를 바라는 바다. 그 같은 우리들의 살아 있는 행동하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러날 때 한국교회가 성경하게 회복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리라 본다.

*본 대회는 많은 교인을 동원하는 대형집회가 아니고 진리를 사모하며 한국교회를 지키기를 소망하는, 성령에 이끌리는 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개최된다.



나라사랑&자사랑운동연대



한교연, 제3회 탈북민초청 힐링캠프

탈북민 300여 명 초청해 사랑으로 위로

한교연(한교연합대표회장 조일래 목사)은 지난 9월 30일 여전도회관 김마리아홀에서 제3회 탈북민 초청 힐링 캠프 행사를 개최하고 어려운 역경을 딛고 대한민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교연 여성위원회(위원장 권복주 장로)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종교와 상관없이 탈북민 3백여 명을 초청해 대한민국에서 다시 시작한 제2의 인생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워 주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4년부터 매해 여성위원회가 행사를 주관해 오고 있으며, 올해로 3회째를 맞았다.

여성위원장 권복주 장로의 사회로 열린 1부 예배는 박상진 목사(기성 여전도회전국연합회장)의 기도, 문인순 목사(부위원장)의 성경봉독, 호산나찬양단의 특별공연 순으로 진행돼 직전대표회장 양병희 목사가 ‘여기 평안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2부 축하와 격려는 대표회장 조일래 목사의 환영사, 조동천 목사(신촌교회), 동영진 목사(한교연 탈북민상담소장)와 김희원 장로(통합 여전도회전국연합회증경회장)의 격려사에 이어 홍기숙 장로(여성위원장)가 참석한 탈북민 3백여 명에게 참치 햄 선물세트 등을 선물했다.



한부모 가족 미소천사 함박웃음 콘테스트

(사)월드뷰티핸즈, 한부모 가족 대상 뷰티 서비스

국제뷰티구개발 NGO (사)월드뷰티핸즈(WBH 이사장 정현일)는 10월 9일(주) 서울 신촌 우리갤러리에서 (2017 한부모 가족 함박웃음 천사(1004) 콘테스트)를 위해 서울한부모, 우리한부모회 소속 70명의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뷰티 서비스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사)월드뷰티핸즈(회장 최에스터, 신한대학교 뷰티헬스사이언스학과 교수)와 비전코리아(대표 김광용), 우리갤러리(대표 김연태)가 공동 주최하여 진행했다.

이런 행사는 한부모 가족들이 용기를 가지고 자립과

자활 그리고 자녀교육에 대한 비전을 품게 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형성을 돕고자 앞으로 서울과 경기 및 전국에서 1004명의 한부모 가족들에게 뷰티서비스와 사진촬영을 진행해 나가는 뷰티서비스 연속사업이다.

이를 통해 1004명의 한부모 가족 전사의 함박웃음 콘테스트를 2017년 5월 가정의 달 국회에서 개최 할 예정이다. 평생 잊지 못할 뷰티서비스와 함께 아름다운 가족사진을 촬영하여 기증하고 아름다운 미소를 찾아 시상하여 이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세계시민학교교장중앙협 출범, 정체성 함양

월드비전, 전국 19개 지역 현직 교장 44명 위촉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회장 양호승)은 지난 9월 29일 월드비전 세계시민학교 교장중앙협의회를 출범시켰다.

중앙협의회 출범식은 월드비전 세계시민교육 홍보대사인 SBS 정석문 아나운서의 진행 아래, 가장 영향력 있는 NGO(비정부기구 지도자) 1위로 뽑힌 한비야 세계시민학교장의 환영사, 김태희 월드비전 교회협력홍보대사의 축하공연, 협의회원 위촉식 순으로 진행됐다.

전국 19개 지역 월드비전 세계시민학교 교장협의회의 회장단으로 구성된 44명의 중앙협의회원은 월드비전 세계시민학교 프로그램 교육 지문 및 정책지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앞으로 2년간 월드비전과 협력할 예정이다.

한편, 세계시민교육은 지구공동체가 연결되어 있



음을 이해하고 지구 공동의 문제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제성을 갖도록 하기 위한 교육이다. 충분한 지식과 가치함양을 통해 세계시민으로서의

‘한국서정시문학상’ 시상식 김명인 시인 수상

백석대학교·격월간 시사사 공동주관

백석대학교(총장 최갑중)는 10월 14일(금) 오후 5시, 교내 창조관 13층 세미나실에서 ‘격월간 시사사’와 공동주관으로 ‘2016 한국서정시문학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의 수상자는 김명인 시인으로, 시집 ‘기차는 꽃그늘에 주저앉아’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이날 시상식에는 원로·중진 시인들 및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축사를 전한 백석대 최갑중 총장은 “이번 시상식을 계기로 한국의 시(詩)가 강성이 공고하고 메마른 시대에 인간의 보편적인 정서를 화북하는 하나의 빛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명인 시인은 “이 상의 의미는 우리 현대 서정시의 근간을 세워가려는 데 뜻을 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귀한 상이 저에게 어울리는지 모르겠다. 좋은 상을 제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한편, 수상자 김명인 시인은 1973년 중앙일보 신



춘문예로 등단해 40여 년간 시를 써왔으며, 현재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인문대학 미디어문예창작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서정시문학상은 ‘오늘의 시점에서 한국시가 추구해야 할 가치와 방향을 서정시에 뒤야 한다’는 가치 아래 제정됐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경기남지방회 혈몬산교회 부흥회 및 철야기도회

선교사 기도의 쉼터, 청소년사역 기도처

혈몬산수양관교회에서는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교회 새생전에서 부흥회와 매주 금요일 철야기도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선교사님들이 마음껏 기도하며 쉬어 갈 수 있도록 선교사 기도의 쉼터, 청소년 사역을 위한 기도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찬양과 기도로 문제해결 받고 기도의 사람으로 무장을 원하는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혈몬산교회 추계부흥회 ●

- 일시 : 2016년 10월 24일(월)~27일(목) 매일 저녁 7시
- 장소 : 혈몬산교회 대성전
- 강사 : 차고라니 윌리엄 목사

장소 및 문의

혈몬산교회(담임 김남순 목사)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마도로 181번길 91-16
(백곡리 산113번지) 010)2415-2062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대하 7:14)

“교회의 올바른 회복 위해 앞장 설 것” 다짐

기독교제모습찾기협의회 제10회 전국대회

(사)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연합회(대표회장 유영섭 목사, 사무총장 반정웅 목사)가 주최하는 기독교제모습찾기협의회 제10회 전국대회(대표회장 남윤국 목사)가 “예수님을 닮은 제자”(요 13:34-35)라는 주제로 지난 10월 6일(목) 연지동 여전도회관에서 열려 교회의 올바른 본질을 회복하여 이웃과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되는데 제모습찾기협의회가 앞장설 것을 결의했다.

대회장 남윤국 목사는 대회를 통해 “거룩한 자리에 함께하신 동역자들과 성도들에게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응답해 주셔서 한국교회 강단을 새롭게 해주시고 교회의 본질에서 이탈한 교회들이 통회자복 주님께 온전히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달라”고 밝혔다.

유순임 목사는 축사를 통해 “교회가 말씀의 본질에 충실할 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교회가 교회의 제모

습을 찾을 때 이 나라와 사회 모든 문제들이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라며, “오늘 기독교교회제모습찾기 전국대회가 초석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심태섭 목사(고문·CCU총장)는 제 2:1~7 말씀을 본문으로 한 ‘바른 교회는 성경대로’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세상에 보이는 교회를 찾기 전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를 찾는 것이 제모습을 찾는 교회라고 생각한다”며, “한국교회가 제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솔선수범하여 교회의 올바른 본질회복을 위해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전국대회는 계속해서 기도와 결단의 시간을 갖고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와 세계선교, 기독교교회제모습찾기협의회를 위해, 애종연신하 교단과 교회들 위해 특별기도를 한 후 사무총장 반정웅 목사의 인도로 교회 본질 회복 등 주제별 기도제목을 놓고 뜨겁게 합심기도를 했다.



전국에서 모인 사모, '거룩함을 이루는 섬김' 다짐

전국사모회 단합대회 '거룩하라'(고후 7:1) 주제로

은혜와진리수양관에서 열려

사모회 회장



차추련 사모

사모회 총무



박경미 사모

교단 전국사모회(회장 차추련 사모·총무 박경미 사모) 2016 전국사모단합대회가 지난 10월 17일(월)부터 19일(수)까지 2박 3일간 은혜와진리수양관에서 열려 기쁨과 축복을 안겨주고 한 해동안 계획했던 일들이 주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 돌아보고 더욱 주님께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을 가졌다.

'거룩하라'(고후 7:1)라는 주제아래 2박 3일간 이어진 이번 단합대회는 첫날인 19일 오후 2시 개회예배를 시작으로 단합대회 일정이 시작되었다.

개회예배는 전국사모회 회장 차추련 사모의 사회로 부회장 한정은 사모의 기도, 서기 오숙희 사모의 성경봉독, 교단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조목사는 빌 1:20,21 말씀을 본문으로 '궁극적 관심'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목회자의 최대관심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주야로 복음 전파를 위해 헌신한다. 사모들도 마찬가지다. 목회자 부부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부르심 받아 교회에서 헌신하는 주님의 일꾼이다'라고 전제한 후 "그러므로 이들이 갖춰야 할 것 중에 첫째가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복음을 회복하는 일을 하게 된다"고 말씀했다. 이어서 복음을 잘 전하려면 복음의 핵심 용어들에 대하여 명확한 개념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신앙적 용어는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성경에 부합되는 뜻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흔히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이해가 부족한 용어들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했다.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모들은 주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한 모든 일에 아름답고 귀한 열매를 맺는 사랑과 헌신의 삶을 다짐하면서 섬기는 교회의 부흥과 교단의 발전을 위해 합심하여 하나됨에 간절히 기도했다.

이어 회계 조정에 사모의 헌금기도, 협동총무 김숙향 사모의 광고, 조용목 목사의 축도로 개회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거룩의 아이콘으로 시작된 단합대회는 창조교회 담임 변원식 목사의 인도로 레크리에이션이 진행되어 긴장을 풀고 마음과 마음을 모아 사랑나눔의 복된 시간을 열었다.

저녁식사 후 성령대방회로 모인 사모회원들은 감사인 교단 총회장 조남영 목사의 은혜로운 메시지와 뜨거운 기도를 통해 큰 도전을 받는 비전과 은혜의 시간을 함께했다.

조목사는 엡 5:15-18 말씀을 본문으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역자들이 될 것을 당부하고 축복했다.

둘째날은 사회봉사제 전당대에 올라 이 일대 광활한 간척지를 돌아보는 일정으로 시작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광명동굴의 신비로운 창조세계를 둘러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저녁시간은 다시 은혜의 시간으로 교단 이광신

사모회 단합대회 감사전



조용목 목사 교단 정책위원장 은혜와진리교회 조남영 목사 교단 총회장 가평순복음교회 이광신 목사 아가페교회



정운기 목사 대전양무리교회 조영란 목사 원산별교회

목사를 감사로 특강시간을 가졌다. 이목사는 벤전 27:15-16 말씀을 본문으로 '거룩한 자가 되어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와 함께 거하여 여호와와 이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할 것을 강조했다.

셋째날은 오전 9시 대전양무리교회 정운기 목사를 감사로 특강이 있었으며 설문지작성과 행운권추첨시간을 통해 정성껏 준비한 선물들을 회원들에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며 곧바로 일산별교회 조영란 목사의 설교로 폐회예배를 드리고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조목사는 창 14:17-24 말씀을 본문으로 '물질을 뛰어넘어 그리스도에게로'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땅 끝까지의 복음전파를 위해 하나님께서 비하셔서 사역자로, 내조자로 세우셔서 크게 들어 사용하심에 감사드리고 더욱 더 힘을 내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을 당부하고 전국사모회원들을 축복했다.



광명동굴 앞에서... 안산시흥자랑회 이은주 목사의 청으로 양기대 광명시장 뒷편 가운데에 광명동굴에 나와 광명동굴의 구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함께 기념촬영했다.



각 조별 장기자랑



변원식 목사



목창껏 최고 음량에 도전



만보기 최종 결승에서 총력을...



얼굴표정은 좀 그래도 열정만큼은 최고예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맛있는 식사를 회원들과 함께

초대시

정문석 시인

세상을 돌아보지 말라

— 창세기 19장 —

하루에도 나는
몇 번이나 조금 기동이 되어
세상을 잊어 버리지 못한다.
롯의 아내여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고
다짐하면서
믿음이 약한 자여
세상의 유혹에 이끌려서
나는
뒤를 돌아 본다.
뒤를 돌아 보았자
유황과 불의 비가 퍼붓는
타오르는 소돔과 고모라,
나의 어리석은 미련이여
나는 하루에도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고 조금기동이 된다.
마음이 유혹되고
잰터미로 화하는
재물에 미련을 가지게 되고
오늘의 유혹 앞에
마음이 흔들리고
뱀의 혀의
죄임에 빠져
뒤를 돌아 본다.
거듭 믿음이 약한 자여
앞만 보고
걸어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

정문석 시인 프로필

- 1988년 전남 강진 출생
- 강진농고, 서라벌 예대 문예창작과 수학
- YMCA 주최 고등부 백일장 석류 시정원
- 고등학교 시절 시집『오랑, 발간
- 시집 『사랑하는 사람들』 발간

- 월간 『한국시』에서 무지개 농장 외 2편 당선
- 대한교과서(주) 위원
- 도서출판 한양 대표
- 가평순복음교회 집사

한국복음주의학
발원문

원주희 목사 // 샘물호스피스선교회 회장

가장 소외되고 약한 말기 환자들을 섬깁니다 ①

샘물호스피스선교회(이사장 손봉호 박사 / 회장 원주희 목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독립형 호스피스 시설을 1993.11.26부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회, 병원, 단체후원 및 개인 후원자와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현대 의학적으로 소생될 수 없는 말기 암환자들을 비롯하여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꼭 필요한 말기환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기관입니다.

본 선교회는 샘물호스피스병원(90병상 규모)을 운영하며 의학적으로 더 이상 치료 불가능하다는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낙심한 가운데 죽음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말기환자들을 생을 마치실 때까지 그리고 환자들이 생을 마치신 이후에도 그 유가족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아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본 선교회는 1993.6.10. 발족하여 1993. 11. 26 ~ 2016. 9. 30 까지 8,513명의 말기환자를 섬겼으며, 2,326명의 환자와 가족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18623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본 선교회에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을 받고 각처에서 생의 마지막 시간을 돕는 호스피스선교사로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해외 지회로는 네팔 카두만두 지역에 15병상 규모의 호스피스 시설을 2007.27.부터 운영하고 있고, 국내 지회로는 경북 구미에서 2013.12.12부터 가정 및 병원 방문형 호스피스 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재 구미 지역에 호스피스 시설을 세우기 위해 적절한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또한 본 선교회는 호스피스 사역 이외에 에이즈 환자들을 돌보는 사역도 동시에 감당하고 있습니다. 15병상 규모의 에이즈환자들을 입원하여 돌보는 병동을 2007.11.05.~2010.11.30., 2015.02.03.~현재까지 운영하고 있고, 에이즈 환자들을 대상으로 치료무료진료를 2007.10.3.부터 현재까지 감당하고 있습니다.

협력사역으로는 본 선교회 단지 내에 성인 자폐증 대상자들을 위한 창작 그릇흙 시설을 위해 부지를 본회에서 무상으로 제공하고, 석성나눔재단(조웅근 이사장)이 건축비를 후원하여 완공된 그릇흙

을 밀알복지재단(홍정길 목사)에서 2016.6.29.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고 연약한 말기환자, 에이즈환자, 성인 자폐증 장애인들을 돌보는 사역이 본 선교회 울타리 안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샘물호스피스선교회 사역의 목적과 방향

말기질환으로 더 이상 의학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잔여수명이 6개월 전후로 예측되어지는 말기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생의 마지막 시간까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하나님 사랑 안에서 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샘물호스피스선교회 사역의 목적입니다. 아울러 에이즈 환자, 성인 자폐증 장애인 등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연약한 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본 선교회의 사역 방향입니다.

(다음호에 계속)

사 설

한국교회, 대량 탈북 대책 세워야

북한 김정은 집단이 지난 9.9. 제5차 핵실험을 강행한 이후 유엔의 대북제재가 한층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탈북자들이 늘어나고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 경고성 발언도 나오고 있는 등 북한의 운명이 중대한 변화가 일어날 것만 같은 요즘의 정세다.

만일 미국이 북한 핵무장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강력한 선제타격을 가했을 경우, 우리 한반도에 몰아닥칠 긴급 상황은 미루어 짐작하기조차 어렵다 할 것이다. 이 같은 사태전전 속에 북한 동포들의 탈북대열은 뚜렷이 늘어나고 있다. 이때 우리 한국교회는 재빨리 대비해야 할 일이 있다. 바로 대량 탈북 대비태세다.

언론 보도를 보면 10.13.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김정은이 핵 공격을 감행할 만큼 진전된 능력을 보유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곧바로 죽는다.”고 말했다고 전한다. 미 국무부내에서 한반도 문제를 총괄하는 책임자가 김정은을 겨냥해 죽는다 고 조강경 경고를 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이고 이는 김정은의 핵미사일위협이 임박했을 경우, 미국이평양에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는 발언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이 같은 사태전전 속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 급변 사태가 발생하면 단기간에 약 10만 명의 탈북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10만 탈북촌(村) 건설 계획 등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10.11.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이며 통일의 시험장”이라 말하고, “관계 부처들은 탈북민

정책을 위한 제도를 재점검하고 자유와 인권을 찾아올 북한 주민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체계와 역량을 조속히 갖춰야 나가기를 바란다.”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통일부에 의하면 자유를 찾아 남한으로 넘어와 정착한 탈북민이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2만9천688명이어서 탈북민 3만사대가 되었다. 우리 주변의 탈북자들 소리를 들어보면 목숨을 걸고 남쪽 자유의 조국으로 내려온 탈북자들을 차별대우 하는 일이 제일 견디기 어렵다고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라고 노래하는 국민들이라면 탈북자들에게 대해 최대한의 위로와 도움을 주는데 인색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더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한 층 더 탈북 동포들에게 따뜻한 보살핌의 온정과 손길을 베풀어야 한다. 여호와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니사요 나그네를 우선 대접하시는 분이 아니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이었음이니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하므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찌라” (창 22:21-23) 말씀하신다.

언제저 처참한 인권 말살과 핵무기에 광분하는 김정은 체제가 무너지고 폭압의 장막이 파괴될지 모른다. 그러나 지금은 매우 정신을 바짝 차리고 대비해야 할 때임은 분명하다. 한국교회는 주님의 사랑 실천과 지상명령의 준행을 위해서, 이 땅의 어느 누구보다 먼저, 만민의 대량탈북 대책을 세워 사명을 다해야 할 책무가 있다.

사랑과 헌신의 삶 다짐-전국사모회

전국사모회는 가을철 알찬 수확을 앞두고 한해 동안 계획했던 일들이 주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 돌아보고 더욱 주님께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을 가졌다. 지난 주간 2박 3일간 함께 투숙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며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선의의 경쟁도 하고 뜨겁게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한 은총에 감격하여 울기도 했고 뜨겁게 찬양하며 은혜와 감동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경기도 일대 대부도와 광명동굴 등 주요관광지를 돌아보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도 했다.

“거룩하라” (고후 7:1)라는 주제아래 2박 3일간 이어진 이번 단합대회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한 거룩하

고 아름다운 소원과 관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함을 다짐했으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하게 살아가며 힘써 복음을 전파하여 모든 활동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 되게 하고, 천국과 주님이 주실 칭찬과 상급을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살아가며, 교회의 유익과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마음에 새겼다.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모들은 주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한 모든 일에 아름답고 귀한 열매를 맺는 사랑과 헌신의 삶을 다짐하면서 섬기는 교회의 부흥과 우리 교단의 발전을 위해 합심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편집고문 : 정책위원장 조오목 목사

●발행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2)2677-4609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영평로 22 다빌 5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게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경기남지방회 다메섹교회 ACADEMY

목회자 세미나 기획안

각 교단의 교세확장을 위한 세 불리기 목회자 양성은 영성과 인성, 영적진단과 처방 등 목회자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신앙적 인격을 갖추지 못한 채 목회현장으로 내몰리며, 목회는 고사하고 기본적인 생계도 유지 못하는 난항에 이른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기성 지도자들의 교회내 각종 금융 비리와 절제되지 못한 사생활문제는 교회 문제를 떠나 사회의 지탄을 받으며 개신교의 위기를 자초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새롭게 출발하는 목회 초년생들과 이제 겨우 어려운 고비를 넘긴 개척교회 목회자들에게 좌절감을 안겨 주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땅 끝까지 복음전파라는 목회자의 사명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주의 종들이 늘어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보며, 기성 목회자들의 자성과 회개, 그리고 뚜렷한 목회관 없이 성공목회라는 세상과 야합한 신기루를 염원하며 목적 없이 영적으로 방황하는 목회자들에게, 예수께서 보여주신 참 목회자상과 신앙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함으로 그들의 목회에 힘과 용기를 주고자 장고 끝에 다메섹 순복음교회에서 목양신문사와 공동으로 목회자 세미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한다.

참 목회자 상과 목회자들의 새로운 이정표

1. 서론
2.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들 것이다.(마 5:3)
3. 빛이 있으라.
4. 계시, 감추어진 것
5. 에덴, 천국
6. 영에 관하여
7. 영 분별에 관하여
8. 결론

에덴(비유) 천국(실상)
천국은 단순히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누림이 완성이다(마12:28).

- 시 간 : 매 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12시 30분
- 대 상 : 광주를 중심으로 성남, 용인, 곤지암, 하남, 이천, 여주에 교회를 두고 있는 개척교회, 미자립 교회의 목회자를 중심으로 우선 시작한다.
- 강 사 : 강사는 목회자들에게 존경받으며 귀감이 되며 덕망을 갖춘 본 교단 목회자 또는 교수 중에서 선임 하되 점차 초교파적으로 확대한다.
- 홍 보 : 목양신문을 통해 정기적으로 한다.
- 위 치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현산로 130-40
다메섹순복음교회(담임 이원정 목사)
- 연락처 : 031-765-2791, 010-6020-6312

홈페이지 :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16학년도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년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의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⑥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② 서류심사 및 면접 : 수시
-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 02)2678-5181
e-mail :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산하 지방신학교

2016학년도 신·편입생 모집요강



(학장 고영권 목사)

예하성부산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부산시 부산진구 새싹로35번길 14
- T E L : 051)803-3927
- F A X : 051)581-0198
- e-mail : yhsbs3927@hanmail.net



(학장 김임복 목사)

예하성광주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 372-25
- T E L : 062)952-7004, 010-5614-2004
- F A X : 062)953-5004
- e-mail : sm1004@daum.net



(학장 최병진 목사)

예하성전북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금 제도, 본 교단 총회 신학, 목회대학원 진학, 목사고시 응시자격 부여
- 주 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
- T E L : 063)251-3978~9
- F A X : 063)251-3980
- e-mail : sunshalom@naver.com



(학장 김상용 목사)

예하성청주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학교장 장학금, 이사장 장학금, 지방회 장학금, 목회사역자, 사모, 자녀 장학금
- 주 소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68
- T E L : 043)274-2265, 273-2211
- F A X : 043)237-2705
- e-mail : ho--gi@hanmail.net



(학장 오일선 목사)

예하성충남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중1길 14 한길프라자 B동 301호
- T E L : 041)567-3004
- F A X : 041)575-3171
- e-mail : changdeman@hanmail.net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http://www.aogk.org / e-mail:aogk@aogk.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본부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나길 8
TEL:02)2675-5181~3 FAX:02)2677-5181